

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제철 음식

1년 전과 비교하면 정말 격세지감이다. 작년 이맘때는 너도나도 “이제 나라냐?”라며 탄식했으나 지금은 ‘나라다운 나라’에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정말 한순간에 밤심할 수 없는 역동적인 나라다.

지난해에는 역사의 현장을 놓치고 싶지 않아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광화문으로 나갔다.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해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촛불 집회는 분노 대신 풍자가, 탄식 대신 감동이 넘쳤다. 하지만 너무 길었다. 늦가을의 차가운 기운을 견디기 위해 중무장을 했지만 40대 후반에 접어들 부실한 몸은 수시로 한계에 부딪혔다. 중간중간 허기도 채우고 따뜻한 음료도 먹어 줘야 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는지 광화문 주변의 음식점과 카페 등은 예상치 못한 ‘촛불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그날도 그랬다. 구호를 외치느라 목이 칼칼해지고 온몸에 한기가 물려왔다. 함께 집회에 참석했던 친구는 광화문 정부청사 뒤편에 있는 작은 카페로 나를 이끌었다. 주인장이 직접 내려 준 커피 한잔에 컨디션이 차츰 회복되었다.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는 동안 주인장은 맛이나 보라며 ‘홍시 스무디’를 내왔다. 잘 익은 홍시에 얼음만 넣고 갈아 낸 음료 한잔에 잠자고 있던 관능이 살아났다. 은은한 향과 고운 단맛, 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 살이 어물고 가을 햇살 속에 녹진녹진 익어

간 홍시만이 낼 수 있는 향과 맛이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국정 농단으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2016년의 가을을 ‘홍시 스무디’ 한잔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이후로는 다시 그 맛을 보지 못했다. 숨가쁘게 굴러가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겨울이 가고 봄을 맞았다. 더불어 홍시 스무디의 계절도 끝나고 말았다. 홍시를 열린 푸레를 사용하면 일 년 내내 그 맛을 볼 수 있으려만, 고집 센 주인장은 굳이 가을에 수확한 홍시만 고집했다.

그리고 다시 가을을 맞았다. 나는 더위가 가실 무렵부터 홍시 스무디를 기대했다. 다행히 고집 센 주인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10월 중순께부터 홍시 스무디를 출시했다. 그런데 10월 중순에 벌써 홍시? 아니나 다를까 주인장은 홍시가 아니라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해 후숙한 연시로 만들었음을 솔직히 밝혔다. 숙성에 익숙한 나는 비싼 전라북도 부안의 대봉 홍시로 스무디를 만들었다. 덕분에 나는 올해도 가을의 향기와 달콤함을 유감없이 만끽했다. 이것저것에 ‘과일의 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지만 적어도 내게는 얼음과 함께

곱게 갈린 홍시가 이 가을 진정한 과일의 왕이다.

그가 만약 연시와 홍시를 구분하지 않고, 연시 숙성에 유별날 정도로 까다롭지 않고, 냉동했거나 가공 과정을 거친 푸레를 사용했다라면, 그래서 1년 내내 아무 때고 먹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그저 평범한 음료일 뿐 가을을 기다리는 설렘과 가을을 맞는 기쁨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있다. 십수 년 전 전남 장흥군 회진면에 취재를 갔을 때 난생 처음 매생이국을 먹어 봤다. 고운 파래 같은 것이 듬뿍 든, 김이 모락모락 나지도 않는 국을 대수롭지 않은 듯 퍼먹었다. 뜨거운 열기를 속으로 품고 있던 매생이는 초짜의 입 속을 여지없이 헤집어 놓았다. 식감은 했지만 그 여리고 개운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을 포기할 수 없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순식간에 국 한 사발을 비었다. 그리고 맛있는 차가운 바닷바람이란!

매생이를 키우는 일은 비교적 간단했다. 대나무를 쪼개고 엮어서 만든 밧을 바다에 세워 두면 자연스레 포자가 붙어 바다가 들고나며 키웠다. 하지만 선달부터 이듬해 정월 대보름까지의 수확 과정은 살을 에는 듯한 바람과 싸워야 하는 고된 작업이었다. 수온과 환경에 민감한 매생이는 빨발, 자갈, 바위, 나무 등에 붙어 자랐고 아무리 청정 해역이라도 물살이 세거나 수온이 높으면 자라지 않았다. 그래

서 전라남도 고흥, 장흥, 강진, 해남, 완도 등 서남해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겨울의 진미였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급속 냉동과 동결 건조 기술의 발달로 매생이는 이제 사시사철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식재료가 되었다. 계절감을 잃은 매생이는 맛은 그대로지만 전과 같은 감동이 없다.

인간의 미각은 논리보다는 감성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언제 먹었는지 누구와 먹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먹었는지에 따라 같은 음식도 다른 의미로 기억된다. 결국 그 기억들이 축적되어 미각의 한 축을 형성한다.

먹을 것이 자천으로 날린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먹을 게 없다’ ‘ஏ전 그 맛이 아니다’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늘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먹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계절감을 잃었기 때문이다. 기억이라는 미각의 한 축이 무너졌다는 의미다. 사시사철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것들에게선 감동도 설렘도 없다. 기다림의 여유와 애타름 속에 맛이 깃든다. 음식을 통해 계절을 맞고 보내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풍류이고 삶을 즐기는 방법이다. 그러나 서두르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림 줄이는 여유를 갖자.

점점 차가워지는 바람 속에서 기름이 오르는 바다 생선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으신가?

〈맛 칼럼니스트〉

社 說

2800억 사업 좌초 예산 낭비 책임은 누가 지나

전남개발공사가 2800여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해 온 여수 죽림 1지구 도시 개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환경 평가를 소홀히 한 채 사업을 진행한 데다 땅값 급등에 따라 사업비마저 크게 불어났기 때문이다. 전남도의회 서일용 의원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는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100만㎡에 2021년까지 286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택지로 개발하는 죽림 1지구에 대해 사업 환경 변화를 이유로 타당성 재검토에 들어갔다.

공사는 당초 2만 평 규모의 야산을 허물어 아파트 건립 부지로 사용하고, 이곳에서 나온 토석으로 주변 저지대를 매립하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야산 훼손은 안 된다며 ‘원형 보존’ 의견을 제시해 발목이 잡혔다. 여기에 각종 개발 호재로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가 15%가량, 시가로는 3~4배 폭등해 사업비가 1200억 원(41.8%)이나

늘어나게 됐다. 양지문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최근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가 상승과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원형 산지 보존 문제 등으로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죽림지구는 지난 1974년 여수국가산단 부지로 지정됐으나 개발이 지연되면서 40년간 주민 재산권 침해가 지속됐던 지역이다. 더욱이 택지 개발 추진 초기 민간 개발 부지와 겹쳐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사업이 좌초될 경우 토지 소유주의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되는 이유다. 또 설계비 등 20억 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는 물론 행정의 신뢰 추락도 볼 도량 뻔하다.

전남도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는 여수 경도 개발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투자와 험값 매각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다. 죽림 1지구 개발에 대한 사전 검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예산 낭비의 책임은 누가 지니 하는지,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대중탕보다 비싼 학교 수도요금제 개선해야

가득이나 재정이 넉넉지 않아 냉방비와 난방비마저 아껴야 하는 일선 학교들이 비싼 수도 요금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학교마다 월 평균 600만 원이 넘어 음식점이나 카페보다 비싼 수도 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는 학교에 적용되는 수도 요금이 ‘일반용’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광주 초·중·고교 378곳에 부과된 수도 요금은 지난 2014~2016년 3년간 총 179억8350만 원이었으며, 매년 요금이 1~2억 원가량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중 가장 많은 수도 요금을 낸 곳은 정광고와 조대부고로 한 해에 각각 7380만 원(월평균 615만 원), 7190만 원(599만 원)의 요금을 부과받았다.

학교 수도 요금은 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가정용·목욕탕용·산업용·일반용(학교·카페·음식점) 등으로 나뉘 부과되고 있으며,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한다. 학교 수도 요금은 물을 적게 사용할 경우 산업용이나 영

업용과 비슷한 수준의 요금이 나오지만, 사용량이 많은 탓에 최고 누진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최고 누진율 기준으로 1㎡당 학교 수도 요금은 1100원이었다. 같은 기준의 가정용(700원), 목욕탕용(660원), 산업용(640원) 등에 비해 월등히 비쌀 뿐만 아니라 이들은 최고 누진율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실상 학교 요금이 여타 요금보다 배 이상 비싼 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수도 요금 인하를 요청했으나 광주시 또한 열악한 재정 형편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이 쓰는 물값을 음식점이나 목욕탕보다 비싸게 받아서는 안 될 일이다. 전기 요금의 경우 따로 ‘교육용’이 있어 혜택을 주고 있다는 데, 학교용 수도 요금 역시 이처럼 요금 체계를 개편해서 학교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공기업(公企業) 전문가인 이상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 공기업의 이해’(2007)에서 “공기업은 공공성을 목적으로, 기업성을 수단으로 운영된다”고 정의한 바 있다. 또 유한 서울대 명예교수는 ‘공기업론’(2010)에서 우리나라 공기업 설립 배경은 경제 발전의 촉진, 독점적 사업, 사회간접자본의 형성, 공공 수요의 충족, 재정적 수요의 충족, 역사적 유산 등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두 개의 어려운 과제를 모두 충족하면서 동시에 사기업(私企業)의 자급력이 미지

내 공기업 맞나

지 못하거나 해낼 수 없는 공공의 업무를 독점해 처리한다는 의미다. 과거 어렵고 부족한 시기에 공기업의 존재와 역할은 충분히 공감을 얻을 만했다. 주가, 전기, 통신, 기차, 고속도로 등의 분야에서 공기업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수준 높은 공공 서비스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한 공기업에 이상 신호가 잡힌 것은 2000년대 들어 사기업의 능력과 영역이 커지고, 공기업이 그 존재 이유와 핵심 가치인 ‘공공성’을 조금씩 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공기업이 ‘이익’에만, 공기업 직원들이 ‘연봉’에

만 집착하면서부터 사기업과 경쟁하거나 범·제도적인 혜택과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제 주머니만 채우는 데 급급한 모습을 노출한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공기업의 이 같은 ‘의무 위반’은 단골 지적 사항이었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도 임직원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고, 신입 사원의 연봉은 나날이 높아 가고 있으며, 신규 채용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공기업이 공공이 아니라 회사 자체의 이익에 충실하면서 목적(공공성)과 수단(기업성)이 뒤섞이고, 공기업의 가장 큰 단점인 ‘무책

임’도 만연하고 있다.
공기업 LH가 지역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시공원 개발에 나선다고 한다. 과거 값싼 도시 외곽의 임야·전답 등을 고층 아파트 부지로 조성한 뒤 팔아 고수익을 얻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공원을 수단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도심 쇠락, 주거 양극화, 도시 전체의 고층화 등 작금의 도시 문제에 있어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LH가 공기업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chadol@

의료칼럼



조 성 범
화순전남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결혼 적령기’라는 단어가 있다.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적령기란 ‘어떤 일을 하기에 알맞는 나이가 된 때’를 뜻하는데 불록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하루 살기도 힘든 청춘들에게 어느덧 세간의 결혼 적령기라는 말도 서서히 허물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변함 없이 중요한 적령기가 있으니, 바로 ‘치료 적령기’이다.

‘치료하기 알맞은 질병 진행 단계가 된 때’를 말하는 치료 적령기를 두고 의료 현장에서는 치료 ‘적기’라고 부른다. 특히 조기 발견이 어렵고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간암의 경우, 치료 적기가 무척 중요한

간암 치료에도 적령기가 있다

질환이다. 게다가 2016년 전국 간암환자 유병률을 살펴보면, 전남 지역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서 지역 내에서 간암 예방 및 적기 치료에 대한 활발한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간암은 초기에 발견될 경우 치료 효과가 높지만,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거의 없어 이미 병이 진행된 뒤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환자가 진행된 상태에서 간암 판정을 받게 된다. 간암 예방의 첫 걸음은 발암 주요 원인인 B형, C형 간염을 피하는 것이며 간염 외에도 알코올성 간질환이나 지방 간염과 같은 만성 간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 반드시 정기 검진으로 간 건강을 확인할 것을 권한다.

간암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 환자 질병 진행 상태와 간 기능 등 개별 특징에 맞는 치료법을 적기에 선택하는 것이 환자의 생존율 연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간암 진행 단계는 일반적으로 조기 간암을 1, 2기, 중기를 3기, 전이가 있거나 진행된 암을 4기로 나누고 있으며 간 기능 등급을 추가적 요소로 반영하고 있다.

간암을 뒤늦게 발견한 대다수의 환자들은 3기나 4기를 진단받게 된다. 국립암센터에서 제정한 ‘2014 간세포암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기에는 색전술을 4기에는 표적 치료를 우선 권장하고 있다.

잔존암이나 재발에 대해 6개월 내 3회의 반복적인 색전술을 시행했음에도 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색전술 실패 또는 무반응으로 간주하고 표적 치료를 고려하게 된다. 색전술만을 반복할 경우 치료 반응율이 낮아지고 간 기능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 반응에 따라 적절한 한 시기에 표적 치료법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적 치료의 경우, 국내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한 표적 치료제가 병이 진행된 상태로 진단되는 간암 환자를 위한 표준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1차 표적 치료 실패나 내성 발생 이후 적용할 수 있는 2차 치료 옵션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 10년 만에 생존율 증가 효과가 입증된 간암 2차 표적 치료제가 등장했다.

생물 다양성의 보고 국립공원 ‘무등산’



김 보 영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이 지나가듯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도 벌써 4년을 넘어섰다. 국립공원 지정 이후 자연 자원 조사, 탐방로 정비, 훼손지 복원, 명품 마을 조성 등 국립공원에 걸맞은 관리를 하여 무등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품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자연 보호 국제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 지역의 지정 목적을 ‘자연자원 보전과 함께 생태적·문화적 가치와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를 증진하기 위해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무등산의 자연 자원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간 이루어진 자연 자원 조사, 자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식물 1817종, 동물 1826종, 기타 균류 등 총 4012종의 생물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특히 수달, 담바, 삿, 으름난초 등 멸종위기종 19종과 쌍꼬리부전나비, 이끼도롱뇽, 한국산개구리와 같은 한반도의 고유종 51종이 확인되었다. 이는 2009년 도립공원 시절 조사된 2278종 및 무등산과 여건이 유사한 도시 인접 국립공원인 북한산, 계룡산과 비교해도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석곡동에 있는 평두메습지는 보방산 개구리를 포함해 삿, 담바, 물새 등 다양한 야생 동물의 중요한 서식지 역할을 하며 운림동의 제1수원지에서는 새끼 두꺼비들의 대이동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러 지점에서 왕다람쥐꼬리, 석곡 등 쉽게 볼 수 없는 희귀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긴꼬리딱새, 팔색조 등 멸종 위기 야생 조류가 여름에 찾아와 번식하고 있었다.

특히 그동안 확인된 적 없는 기후 변화 관심종인 박쥐류 7종을 포함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생물종들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는 전문적인 자원 모니터링의 성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도 한 단계 높은 생물자원 관리를 위해 생물종 서식지 보전·보호 사업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대도 추진하고 있다. 녹색 순찰대, 자율 레인저, 자원 봉사자, 환경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순찰을 통한 밀렵 예방 및 불법 엽구 수거, 멸종 위기 식물 보호 시설 설치, 훼손지 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5~2016년에 진행된 중머리재 복원 사업은 대표적인 서식지 보호사업 사례로 들 수 있다.

매년 40~50만의 탐방객이 찾는 중머리재는 집중되는 탐방 압력과 주변부 이용으로 오래전부터 녹음이 우거진 모습이 사라지고 훼손 면적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였다. 풀포기도 자랄 수 없게 황폐화된 지형 3806㎡에 대한 복원 사업을 위해 약 765t의 심토와 식생매트 등이 헬기와 시민의 손에 의해 운반되었다. 또한 흙의 유실을 막기 위해 돌흙막이와 횡배수로의 설치 등 안정적인 복원 기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하였고 현재는 탐방객들의 협조로 인해 주변에 있는 초본, 목본류의 식생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점차 복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훼손된 생태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많은 비용과 노력

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자연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기 전에 인위적인 활동을 조절해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이제 무등산국립공원은 생태계 복원에 대한 첫걸음을 내디뎠으며 이러한 복원사업은 생물종들의 안정적인 서식지를 조성하기 위해 무등산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무등산국립공원에서 추진하는 생물종 서식지 보호 사업이 이러한 핵심 생물종 증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며 시민의 지지와 공감대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국립공원을로서의 무등산의 가치가 더욱 빛을 볼 것이다.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 같은 동네 뒷산으로만 생각하고 자주 올랐던 무등산의 자연 자원 가치가 이렇게 우수할 줄이야라고 생각하는 시민도 많을 것이다. 무등산의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생물 다양성이 증대될수록 시민들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립공원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진다는 점을 서로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협력해야 할 때이다.